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 '더 촘촘하게'

정읍시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도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노인복지 분야 예산을 1,37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1,192억원 보다 15.1% 증액된 액수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더 안락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인구의 28%인 3만380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 기반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소득기반· 촘촘한 어르신 돌봄망 구축
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촘촘한 돌봄망 구축을 위해 올해 9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했다. 지난해는 2만4,0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748억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으며, 올해 4월 기준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3만380명 대비 82.2%인 2만4,981명이다. 시는 수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연금대상자와 지급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37억4,000만원을 투입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목표 인원 2,900명 중 92%인 2,650명의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방문해 안부 확인과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지원 등의 후원 물품과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1억4,500만원을 들여 ICT 기술을 활용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도입해 주거 공간에서 홀로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5억8,600만원을 투입해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는 10개소의 무료급식사업장을 운영하며 650명의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배달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급식단가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영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909억원 예산 투입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나서
경로당 정향누리사업 등
경로당 중심 신규시책 '눈길'
올해 노인복지관 2곳 문 열어**

인생 2막을 위한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인생 2막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7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 169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298명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을 확대해 올해는 4,8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주정차 질서계도,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5억600만원을 투입해 노인목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12개소 목욕업소와 협약을 맺고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 이용권 연 최대 10매(매당 5,000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 영위



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 향상

시는 지역 내 720개소 경로당에 대해 마을 단위 노인복지의 전초기지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51억2,000만원을 편성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시설개선과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1억8,000만원을 투입,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전부터 방역 소독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사업들이 눈에 띈다. 향기 식물 보급으로 일상 속 향기 전달과 함께 반려 식물을 볼품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정향누리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경로당 내 누수 탐지와 노후시설 확인 등의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방제 차단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 해충퇴치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로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영비 등의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청취해 사업별 집행 가능한 기준을 확대해 지출 가능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비 지원이 없는 미등록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는 후원기업을 발굴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향상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 2개소가 올해 새롭게 문을 연다.

정읍시 동부권 어르신들을 위한 칠보면 소재 '섬진강변 노인복지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섬진강변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3,777㎡의 지상 2층 규모로 최대 3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강의실, 컴퓨터실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총 1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연지동 소재 공공실버주택 내 지상 1층(1,164㎡)에는 실버 노인복지관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식당과 물리치료실, 체육활동실, 문화센터, 다목적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지며, 5월 초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전문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지역별 게이트볼장 2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노후 게이트볼장 5개소에 대해 7억9천만원을 들여 비거립 시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유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백운조경

자연석, 집계자(시공 및 판매)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TEL: 063-432-4568

대표: 신 동 기
H.P: 010-8627-5026